

문학

3108 마수연

원미동 시인 -양귀자-

등장인물

나(경우)
이처럼의 화자.
원미동에서는 7기의 어린 소녀
김자 죄송한 김 반장, 몽달 씨는 원미동 시민 등과 친구이며 소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관찰

원미동 시인
27기의 활동
원미동 시민에게 활동을 지닌
원미동 시민으로 활동을 받고 이유없는 폭력을 담화도 타인의 잘못을 이해하고 일어주는 나그네고 고운 성품을 지닌

김 반장
원미동 여성
나의 연습은 신곡에 미련을 둘
이기적이면서도 남의 눈을 의식하고 소시민의 부정적 친정을 보여주는 인물

줄거리 확인!!

줄거리

나이에 비해 매우 조숙한 '나'는 청소부인 아버지와 남동생을 발견해 기뻐하고 세워질 살하는 원미동 학생이던 엄마사이에서 태어나고 위로는 언니가 서명이나 있다. 다른 아버들이처럼 유기된 딸이었지만 딸의 모래와 여울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는 현재 습관에 내가 수제 주인인 김 반장과 몽달 거리에 청부로 살고 있다. 김 반장은 원미동 산책이 아니라 대개 이웃을 두고 있는 저지 여울로 몽달 '나'를 키워 라고 부르면서 나를 놀라주곤 하는 것이다. '나' 알고도 몽달은 원미동 시민으로서 원미동 시민도 이웃을 키워주려며 소집된다. 그는 온갖 친구인 사람이다.

그런데 일을 전개 일정과 사건으로 '나'는 김 반장이 실어졌다. 엄마, 아버지 부부의 음식을 하는 사이 집에 키지는 '나'는 새끼의 권리 엄마가 나를 더러워 오기를 거절하면서 헤어 습관의 노년 노화에 걸렸다. 그리고 그 노년 노화에 걸렸다. 그는 그 키를 깨끗은 물을 두 사람에게 맛은 도움을 얻어야 했으나, 몽달이는 다음날 일정으로 김 반장에게 구원을 험하였다. 김 반장을 오끼리 봉사를 하기 위해 내쫓아버리고, 그 키에 몽달 씨는 그 두 사람에게 칠집 물리기게 된다. 디자인 '나'가 키워 기운을 차운 아버지에게 구원을 요청한 덕분에 몽달 빙수는 기록으로 구해되고 그 두 사람을 달아나게 된다. 그런데 그녀의 디자인 김 반장은 자신이 몽달의 디자인 디자인에 대한 그 친밀성을 찾기 위해 시름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가 키워 기운을 차운 아버지에게 구원을 요청한 덕분에 몽달은 김 반장의 모습을 보고 온 몸이 사람의 그을 치장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에 몽달은 몽달은 김 반장의 모습을 본 유일한 목적지인 '나'의 아버지에게 민족이 다 함께된다. 가족으로 몽달 주소로 한 몸을 써는 몸이 날마다 다시 김 반장의 키워 나와 일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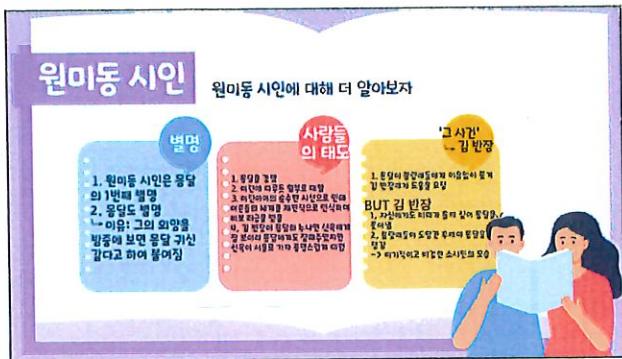
나는 몽달 키워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라면서 몽달 보자면 몽달 하는 모든 척 한다 같고 원인지만 몬내 모르는 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몽달 씨는 디자인, 돈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순수하고 친진이 놀라운 사람이다 것이다.

01 이야기 순서

- 발달: '나'의 소개
- 전개: '나'와 김 반장, 몽달 씨가 친구가 된 사건
- 위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 나는 김 반장이 살아겠다는 고백
- 결정: 김 반장은 불량배들에게 얻어맞는 몽달 씨를 외면하지만, 몽달 씨는 그런 김 반장의 가게를 도움
- 결말: 몽달 씨의 착한 마음씨를 '나'가 이해하게 됨

02 핵심 정리

- 1.概要
단편 소설
- 2.배경
1980년대 여름, 부천시 원미동
- 3.시정
1인칭 관찰자 시정
- 4.주제
소시민의 일상적 삶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항수



기간 : 1980년대 _ 군사 독재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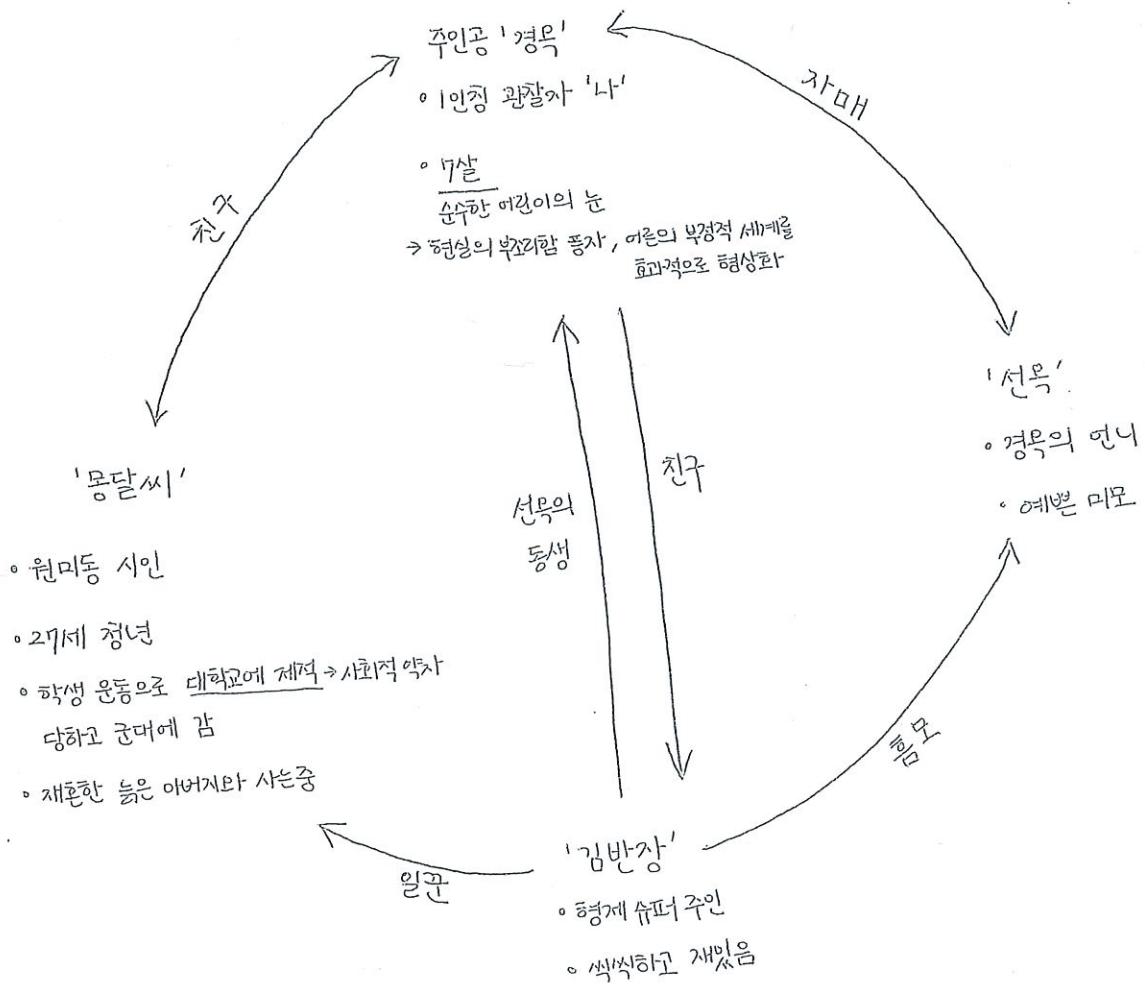
개경 : 부천시 원미동

서울 외곽의 도시 개발 실현지
→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의 공간적 의미

원미동시인

© 3210 설예희

<등장인물>



<줄거리>

① 7살인 '나'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마을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몽달-ssi와

원래 8-9살 아들을 낳기 위해 기전 다쳤지만 → 또래보다 성숙, 소득 출생신고 비용 구박받으며 거동

자신의 언니를 좋아하는 김반장과 친구로 지냅.

) '나'는 몽달-ssi보다 쪽쪽바 파워를 주는 김반장이 더 좋아함.

② 어느 날 밤, 불량배들에 쫓기다가 형제 슈퍼로 들어간 몽달-ssi를 차갑게 쫓아내는 김반장을 목격함.

③ 몽달-ssi는 결국 폭행을 당하다가 지붕포 주씨의 도움으로 삼 → 뒤늦게 김반장이 나타나 몽달-ssi를 부축해준. ⇒ 비겁하고 이기적인 소시민적 태도

④ 그 광경을 본 '나'는 김반장과 결심함.

⑤ 열흘 후, 몽달-ssi는 아무렇지 않게 나와 김반장 일을 도와줌.

⑥ 이를 본 '나'는 답답해져 몽달-ssi에게 그 날 일을 본 사실을 털어놓으며 김반장을 탓함.

⑦ 몽달-ssi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은사시나무에 대화 시판 읊어댔. → 바보 같은 웅당-ssi ...

- 은사시나무 = 웅당-s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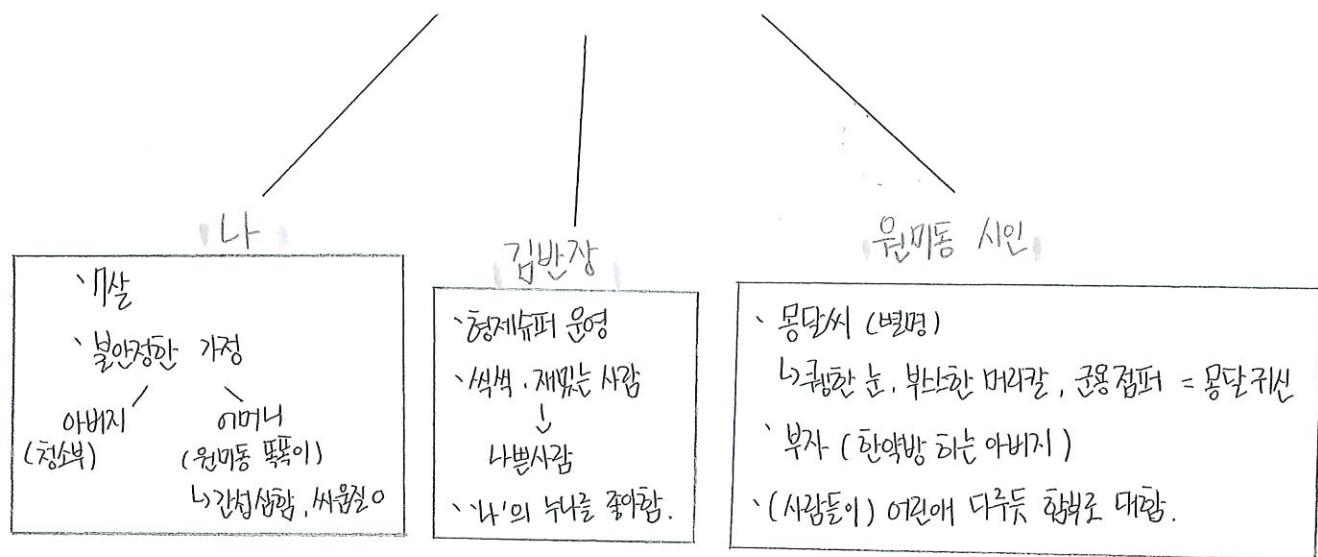
- 박해받고 싶어하는 손교자 : 사람들의 폭력과 소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려는 웅당-ssi

→ 인간의 소시민적
원성을 바탕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인간화)
에 대한 향기

「원미동 시인」 - 양귀자

장르: 단편, 연작소설.성격: 사실적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환경: 시간적 배경 - 1980년대공간적 배경 -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제재: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주제: 소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꿈특징: 원미동이라는 공간을 통해 소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상정,아유없이 한 개인이 당해야 하는 폭력과 이웃들이 방관적인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나타냄.신조화할 수 없는 서술자↳ 어린아이 서술자·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관찰자 역할· 어른들의 세계가 지닌 부조리함, 모순 폭로 가능.

등장인물



줄거리

· '나'가 엄마아빠 부부싸움 때문에 집 밖으로 나와서 경제슈퍼 김빈장네로 감.



경제슈퍼에서 몽당사와 친해짐 / 김빈장은 썩썩하고 재밌는 사람이다.



어느날 몽당사가 불길배한테 쫓겨 경제슈퍼로 감. but 김빈장이 외면함.

하지만 몽당사는 옛날쯤 지나 경제슈퍼로 가서 일 도와줌.



이 모든 장면을 '나'가 봄. 이후 '나'는 김빈장을 나쁜사람이라 함.



몽당사가 '나'에게 솔픈 시를 들려줌.



몽당사는 다 알고 있었지만 배보같이 모른척 함.

원미동 시인_ 양귀자

시간적 배경 : 1980년대

원미동 시인 - <원미동 사람들> 연작 중 하나

공간적 배경 : 원미동

작가 : 양귀자 -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보통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은 채, 시대에 뒤쳐진 도시의 변두리로 내몰린다. (->소시민)
작가는 그들의 소외된 삶을 연민과 애정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등장인물>

나 - 세상 물정을 훤히 아는 것으로 자부하는 7살 소녀, 작품의 화자

- 몽달 씨가 놀림과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함.
- 순수함을 지니며 조숙함으로 동네 사람들의 소시민적 모습을 비판하고, 폭로함.

김 반장 - 소시민적 근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인물

- 이기적 존재 (자신의 이익과 안위 중요)

몽달 씨 - 맑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 = 원미동시인
- 김반장을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존재
↳ 이기적인 사랑

<소설 전체 줄거리>

올해로 7살인 '나'는 집안 사정과 동네 사정을 알고 있는 조숙한 아이이다. '나'는 선옥이 언니를 좋아하여 '나'에게 잘해주는 형제 슈퍼 주인인 김 반장과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몽달 씨와 친구이다. 김 반장은 몽달 씨를 일꾼처럼 부려 먹는다. 어느 날 '나'는 부모님의 부부 싸움을 피해 형제 슈퍼 앞에 앉아있다가 불량배들에게 쫓겨 형제 슈퍼에 들어온 몽달 씨를 보게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김 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몽달 씨를 쫓아낸다. 그러나 몽달 씨는 지물포 주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고, 불량배들이 도망가고 난 후에야 김 반장은 몽달 씨를 부축해준다. '나'는 그런 김 반장의 비겁함에 절교를 결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김 반장의 가게에서 그를 돋는 몽달 씨를 바보같다고 생각한다.

<작품 속 포인트>

1. 어린아이 서술자 : 순수한 시선 -> 어른들의 세계 제한적으로 인식 -> 폭로, 비판

2. '나'의 태도 변화 (about. 김 반장)

씩씩하고 재밌는 사람 -> 그날 밤 -> 나쁜 사람

3. 몽달 씨 ↳ 은사시나무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전체에게도 위험 당함. 그 상황 이해하고
받아들임 = 박해하는 능력자

원미동

: 실제로 작가가 살았던 곳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좀 더 나은

삶 살기 위해 늦은 서울

▶▶▶ 경제적 어려움으로 밀려난 곳.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양측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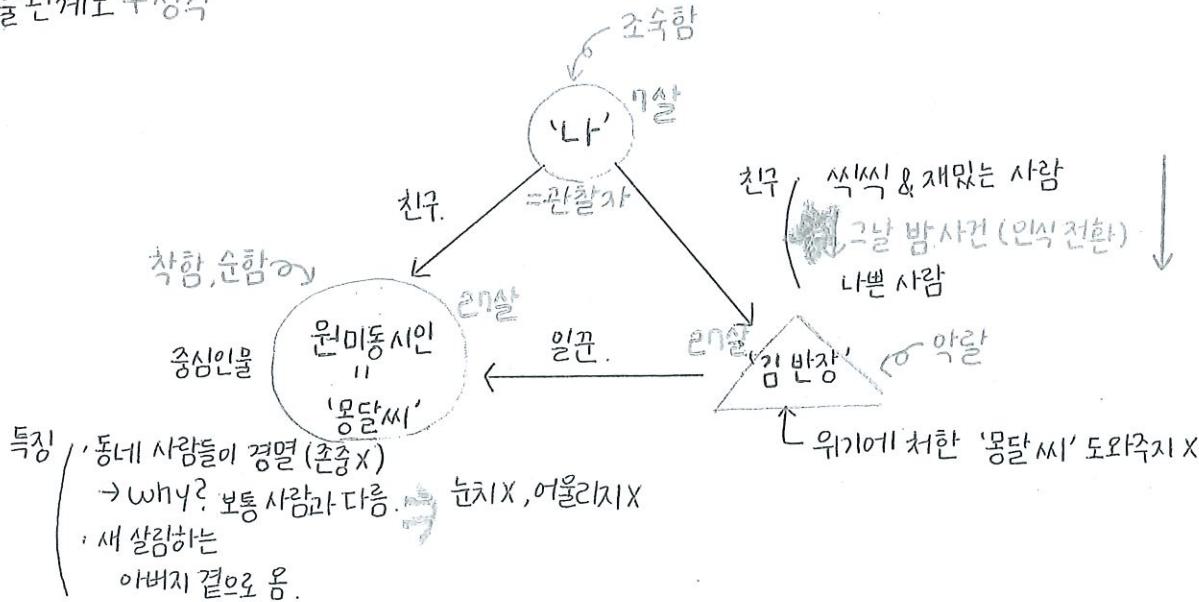
마을사회의 사라진 이 산이 고개

5P. 원미동 시인

시·공간적 배경 | 시: 1980년대 여름 |
공: 부천시원미동 |

주제: 소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향수

인물관계도 + 성격



줄거리: 올해 17살인 '나'는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숙한 소녀이다

+ '나'에게는 조금 모자란 17살 '몽달씨'와 20살 형제 슈퍼를 운영 중인 '김형제'라는 두 친구가 중심사건 있다.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을 피하기 위해 형제 슈퍼로 나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몽달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불량배에게 맞춰 형제 슈퍼로 들어와 '김 반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끝내 '김 반장'이 외연해 결국엔 '죽어라 아치씨'가 불량배로부터 '몽달씨'를 구해준다. 그제서야 '김 반장'이 나타나 그를 위로주는 척한다. 따라서 '나'는 '김 반장'을 나쁜 사람으로 여겼지만 떨칠 지나고서야 나타난 '몽달씨'는 예전처럼 '김 반장'을 도와준다.

★ 강조하고 싶은 부분: '슬픈 시'

→ '몽달씨'가 '김 반장'이 자신에게 한 일 다 알고O

But '몽달씨'— 도와줌 → '김 반장'

⇒ 은사시 나무 = '몽달씨'

「원미동 시인」

양귀자

→ 갈래: 전통소설, 세태소설, 풍자소설, 연작소설

→ 성격: 사실적, 비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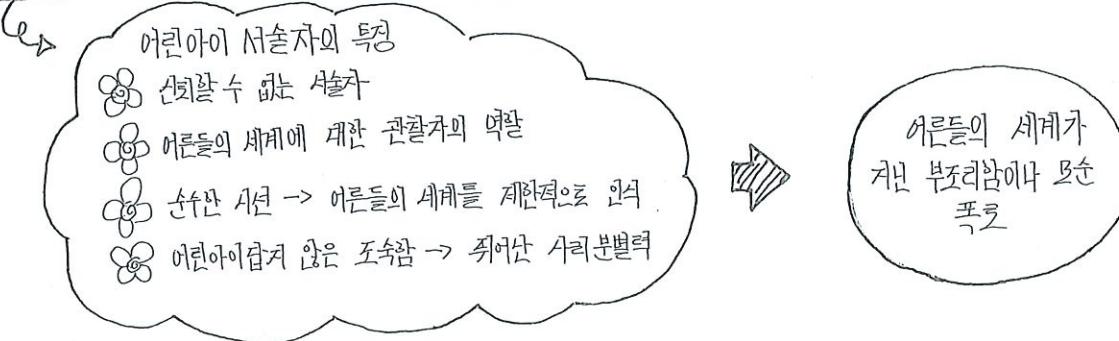
→ 배경: 1980년대 여름, 부천시 원미동

→ 시점: 노인형 관찰자 시점

→ 주제: 소시민의 일상적 삶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항수

→ 특징 ① '원미동'이라는 소시민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통해 일상적 삶을 다루고 있음

- ② 이유없이 한 개인이 당해야 하는 폭력과 이웃들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을 드러냄
- ③ 어린 아이를 서울자로 설정하여 개관적 시선을 확보하여 풍자적 효과를 준



발단 → 7살인 '나'는 어른들이 보는 것보다 조숙한 아이임.

진개 → 표례와 어울려 놀 병원이 못 되어 '나'는 '원미동 시인'이라 불리는 '몽탈 씨'와 형제 슈퍼 주인인 '김 반장'과 친구로 거낸.

위기 → 부모의 부부싸움을 피해 형제 슈퍼 앞에 앉아 있다가 불량배들에게 풋질 몽탈 씨를 향해는 김 반장과 불량배들끼리 촉망방 나는 몽탈 씨를 보게 됨.

절정 → 저울포 아저씨의 등장으로 불량배들이 도망가고, 그제서야 김반장은 몽탈 씨를 챙김.

결마 → '나'는 김 반장의 비겁함에 결교를 결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김반장의 가게를 털는 몽탈 씨를 세우고 생각함.

· 원미동에 이사하여 사는 월급 살 쇼비.

· 형제 슈퍼 김 반장, 원미동 시인과 친구.

· 소시민의 삶의 풍속도를 관찰하는 인물.

· '그걸밤'을 기점으로 '김 반장'에 대한 평가를 달라짐.

- 원미동 5반 반장이며 형제 슈퍼 주인.
- '나'의 언니인 선우에게 미련을 둔 스물곱 살의 이기적인 소시민의 전형적인 인물.
- 자신의 이의와 단계 증시.



김 반장에 대한 '나'의 평가

누구보다 체득하고
재미있는 사람

그날밤

나쁜 사람

몽탈 씨가 아류인 불량
배들에게 풋겨 김 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김반장은
제인에게 고개를 끌고 나온
몽탈 씨를 배울처럼 좋아서
나는 몽탈 씨가 폭행을 당하고
산 후에야 몽탈 씨를 쟁취

★ 이기적이고 비겁한
소시민의 모습